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20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21년 2월 22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가짜노조는 가라!

노동청, 대양판지 어용노조 설립 취소 통보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대양판지 어용노조가 철퇴를 맞았다. 광주노동청은 대양판지 어용노조 설립신고를 직권 취소했다. 회사가 금속노조의 교섭권을 빼앗기 위해 총회도 거치지 않고 거짓으로 어용노조를 설립했기 때문이다.

작년 3월 금속노조 대양판지지회가 설립되자 회사는 관리직 중심으로 노조를 만든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사무관리직을 대거 가입시키면서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차지했다. 이 과정에서 총회도 거치지 않고 거짓으로 노조 설립신고를 한 것이 밝혀졌다.

대양판지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그러나 대양판지는 가짜노조와 임단협을 체결하면서 금속노조와 교섭은 회피했다. 가짜노조는 광주노동청의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회사는 여전히

확정 판결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짜노조와 체결한 임금, 단체협약을 유지하며 금속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노동청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서 대양판지의 부당노동행위를 잡아내고 금속노조와 교섭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노동부의 무능 때문에 현장 노동자들이 불법행위의 피해를 볼 수는 없다. 가짜노조가 진짜노조의 교섭권을 뺏는 상황을 가만두서는 안된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지해야 한다!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은 현행 노조법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독소조항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는 가짜노조를 만들어서라도 조합원 수만 늘리면 민주노조의 교섭권을 뺏을 수 있다. 기업들이 복수노조법을 악용해서 노조파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